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한 영 숙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원융(圓融)의 이미지를 이용한
도자조형연구

201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임경아

원융(圓融)의 이미지를 이용한
도자조형연구

한 영 숙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임경아

인 준 서

임경아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 바쁘게 살아간다.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은 고요한 자연을 찾아 휴식을 취하거나, 꽃을 꽃고, 향을 피우고 차를 나누는 등 사색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 연구자는 공예가 일상생활 속에서 기능성과 심미성이 동시에 충족하며 사용자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두 가지 기능이 조화롭게 균형을 가질 때 공예의 가치가 더 빛을 발한다고 여긴다.

‘원융(圓融)’은 불교에서 비롯된 말로 서로 다른 존재가 타고난 속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서로 어울려 하나를 이룬 경지를 일컫는다. 본 논문에서 도입된 원융의 개념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기능성과 심미성의 두 가지 기능이 하나의 도자작품 속에 균형을 가지고 잘 융화됨을 가리킨다. 다른 하나는 절제된 형태와 동심원으로 조각된 잔잔한 결이 작품 안에서 조화롭게 융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원과 원이 얽매임 없이 하나의 형태를 이룬 동심원은 원융의 이미지를 시각화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동심원은 하나의 중심에서 원이 중첩되면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형상으로 방향성을 지님으로써 발전과 전진의 상징이 됨과 동시에 원이 가진 완전성과 조화로움의 상징도 유지한다.

작품 제작은 물레성형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그릇을 빚는 동안 무수히 생겼다가 사라지는 동심원의 흔적들을 굽을 깎는 과정에서 굽칼로 그릇의 표면에 새김으로써 유약이 자연스럽게 고이면서 태토와 형태와 장식이 융화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시작품들은 간결한 형태의 화기가 주를 이루며, 향꽃이와 문진 등 백자의 간결한 형과 형을 따라 조각된 동심원문이 유약과 함께 원만하게 융화됨으로써 원융의 이미지를 조형적으로 표현하였다. 기물의 표면에 새겨진 잔잔한 동심원은 푸른빛 유약을 사용함으로써 고임을 시각적으로 극대화

하여 끝임 없이 퍼지는 잔잔한 파동을 연상하게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작된 작품들은 현대인의 바쁜 일상 속에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감성의 사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 차

논문개요

| | |
|--------------------|----|
| I. 서론 | 1 |
| 1. 연구동기 및 목적 | 1 |
| 2. 연구방법 | 1 |
| II. 본론 | 3 |
| 1. 원용 | 3 |
| 2. 동심원 | 3 |
| 3. 작품의 전개 | 5 |
| III. 결론 | 25 |

참고문헌

ABSTRACT

시작품 목차

| | |
|---------------------------------|----|
| 【작품 1】 접시 I | 8 |
| 【작품 2】 접시 II | 9 |
| 【작품 3】 작은 화병 | 10 |
| 【작품 4】 화병 I | 11 |
| 【작품 5】 화병 II | 12 |
| 【작품 6】 화병 III | 13 |
| 【작품 7】 화병 IV | 14 |
| 【작품 8】 화병 V | 15 |
| 【작품 9】 화병 VI | 16 |
| 【작품 10】 온도를 담는 접시 | 17 |
| 【작품 11】 접시 III | 18 |
| 【작품 12】 문진과 향꽂이 | 19 |
| 【작품 14】 향꽂이 _ 봄의 색 | 20 |
| 【작품 15】 향꽂이 _ 가을의 색 | 21 |
| 【작품 16】 촛대(candle holder) | 22 |
| 【작품 17】 휴식을 위한 사물 | 23 |
| 【작품 18】 휴식의 테이블 | 24 |

I. 서 론

1. 연구동기 및 목적

공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심미성이 조화를 이룬 사물을 만드는 일이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쉼’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자연을 찾거나 향을 피우고, 삶에 작은 변화를 주기 위해 꽃꽂이를 하고, 차를 나누는 등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쉼을 위한 사물들을 제작함으로써 쓰임과 미적가치가 균형감 있는 공예의 가치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기능성과 심미성, 각각의 속성이 본래의 속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원융(圓融)의 상태를 이루었을 때 공예의 가치가 빛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원융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시각적 조형언어로 표현하되, 백자가 가진 간결한 형태미와 절제된 장식을 통해 동심원 안에서 융화되도록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자는 물레작업을 통해서 찾은 아름다운 곡선을 쓰임이 있는 용기로 만드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물레로 형태를 만들고, 건조 후 굽을 깎는 작업은 본 연구 작업의 핵심기법으로 발전했을 만큼 집중했던 과정이다. 굽 깎는 과정을 통해 형태가 분명해지고 다듬는 도구나 깎는 방법에 따라 미묘한 형태의 변화를 모색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심원의 흔적을 물레성형의 굽깎기 방법을 다양하게 변용함으로써 원융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물레성형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동심원의 흔적을 깎는 과정에서 기벽에 새기면 잔잔한 동심원의 결에는 자연스럽게

유약이 고인다. 고요하고 섬세한 동심원의 조각을 뚜렷이 보여주기 위해 태토는 백색도가 뛰어난 백자를 사용하였고 푸른빛의 유약을 사용하여 극대화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장식방법은 물레위에서 형태를 깎아낸 후 기물 표면에 굽칼로 새김으로써 형과 장식이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하나로 융화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처음에는 넓은 기물의 전부분에 계단형식의 동심원을 조각하다가, 점점 넓고 평평한 부분에 일정한 깊이의 잔잔한 결을 새기는 방식, 지름의 변화가 큰 형태의 기벽에 형태의 변화에 따라 결을 새기는 방식 등으로 형태와 위치에 따라 동심원의 조각을 다양하게 변용하였다.

Ⅱ. 본 론

1. 원융(圓融)

‘원융(圓融)’은 불교에서 비롯된 말로 서로 다른 존재가 타고난 속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서로 어울려 하나를 이룬 경지를 일컫는다.¹⁾ 원융(圓融)은 ‘圓(둥글 원)’과 ‘融(녹을 융)’이 합해 만들어진 단어로 원 안에 융화되어 하나가 됨을 뜻한다. 그러므로 원융의 이미지는 원(圓)이 가진 다양한 조형적 해석을 통해서 표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원은 수학적으로 보면 평면도형의 하나로 중심의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지나는 곡선을 일컫는다. 상징적으로 봤을 때 원은 구석기시대, 그리스, 인도 등의 신화에서 태양의 의미로서 또는 태양신의 지물로 되어 있고, 알려져 있으며, 천공, 광명, 영원, 힘, 조화, 통합 등도 나타낸다. 순환하는 원은 모든 움직임의 포용하며, 통합과 분할, 재통합, 진화와 퇴화, 성장과 퇴행, 생(生)과 사(死)의 과정 등 영원한 시간의 상징으로서 알려져 있다.²⁾ 원과 원이 각각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형태를 이룬 동심원문은 원융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2. 동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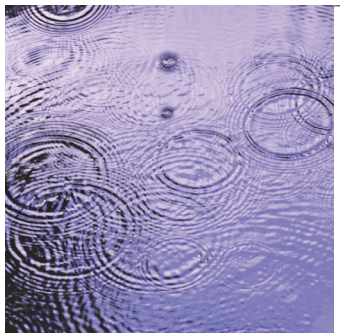
동심원은 중심이 같고 지름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원이 하나의 형태를 이룬 것을 말한다.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퍼지는 동심원은 중심으로의 집중을

1) 법성계는 통일신라시대에 의상이 중국에서 화엄경을 연구하고 그 경의 핵심 내용을 추려서 지은 시로 첫머리에 “법성원융무이상(法性圓融無二相)” 진리와 성품은 원융하여 둘이 아니다. 로 시작한다.

2) 《종교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소, 1988

가지는 동시에 중심에서부터 멀어지는 방향성을 지녀 전진과 발전의 상징이 된다. 이러한 동심원은 에너지의 움직임인 파동의 형태로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보여 지는데 그 중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동심원의 이미지는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특히 수면파동의 이미지는 동심원의 이미지로 많은 작가들의 작품소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조현건 작가는 ‘파문(波紋)’을 통해 에너지가 잔잔하게 퍼져나가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평안함과, 생동하는 아름다움을 물의 순수함과 함께 나타내곤 하였다.³⁾ 양동훈 작가는 ‘물은 창조적 원천으로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만물을 활성화시키는 근원이다.’라고 하며 관념적으로 맑음을 뜻하는 물은 수면에 비치는 현실의 상(像)과 허상(虛像)의 양자를 솔직하게 보여준다고 여겨 자신과 관람자를 비추는 거울로 삼았다.⁴⁾

동심원이 작품의 소재로 활용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동심원은 수면의 파동에서 도출한 조형언어로 자연의 생명력과 평안함을 상징적으로 담아내기에 적합하였다. 연구자가 주제로 삼은 원용의 이미지도 동심원으로 표현가능하며, 동심원의 조각에 유약의 농담효과가 더해져 잔잔한 수면위의 파장과 같이 사용자로 하여금 자연이 주는 평안함과 생동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도판1] 자연 속 동심원이미지 [도판2] 파문(ripple)조현건 2011 [도판3] 원천(源泉)양동훈 2004

3) 조현건, <파동 이미지의 재해석을 통한 장신구 조형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11
 4) 양동훈, <파동의 이미지를 조형화한 조각 작품 제작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논문, 2009

3. 작품의 전개

작품의 형태는 물레성형을 통해 나올 수 있는 원만하고 부드러운 곡선에서 나오는 형과 직선적인 선에서 나오는 형, 이 두 가지 타입으로 제작하였다. 장식으로는 원용을 상징할 수 있는 동심원의 형상을 모티브로 굽칼로 깎는 방법을 선택하였는데, 처음에는 동심원의 형상이 잘 드러나도록 하였으나, 점차 미묘한 깊이 차이를 두어 잔잔한 결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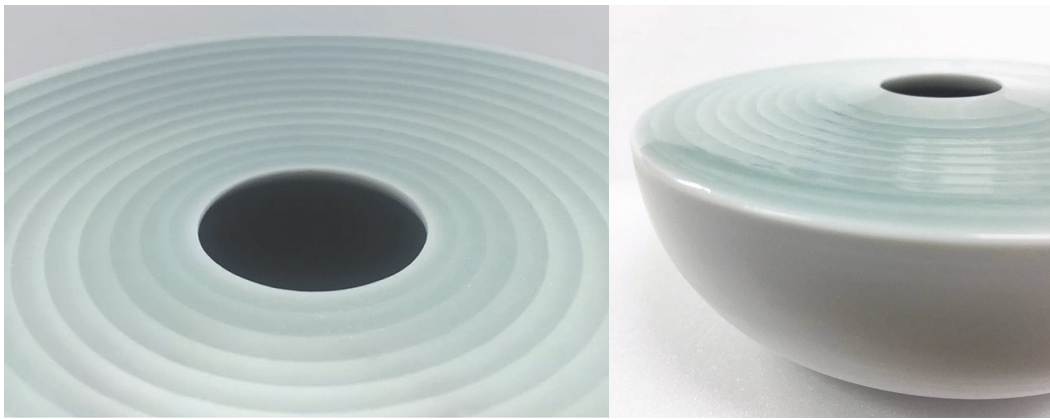
동심원 조각을 새길 때에는 원용의 이미지를 잘 전달 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시선을 고려하였다. 넓고 낮은 사발이나 접시의 경우는 사용자의 시선이 먼저 닿는 그릇의 전 부분[도판6]과 윗면, 화기나 항아리와 같은 형태는 기물의 외벽에 주로 장식함으로써 형태를 부각시키면서 풍만한 양감이 느껴지도록 하였다. 동심원 조각을 기물의 윗면에 넣은 작품들[도판5]은 원의 반복에 의해 생성된 동심원 패턴을 강하게 보여주며 평면적이지만 기의 형태에 따라 깊이가 있어 보이는 착시를 주기도 한다. 동심원 조각을 안쪽 면에 넣은 작품들[도판 7]은 윗면에 조각을 넣은 작품과 비슷한 유형으로 보이지만 기의 내형을 따라 가운데로 갈수록 조각의 깊이를 깊게 주었기 때문에 파문의 중심으로 시선을 집중시켰다. 옆면에 동심원을 새긴 작품들[도판8]은 형의 양감을 부각시켰다. 또한 형의 입체감을 부각시켜주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였는데, 각각의 작품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도 작품 전체로 확장된 원용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백색의 태도를 바탕으로 유약의 푸른빛이 도는 백자유약을 선택함으로써 동심원의 결이 잔잔하게 드러나게 하였고, 경우에 따라 유약에 발색제를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동심원의 조각을 부각시킬 수 있었다.

연구의 후반부에는 기물의 용도에 따라 형태와 동심원의 조각이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한 색의 유약을 활용함으로써 동심원의 이미지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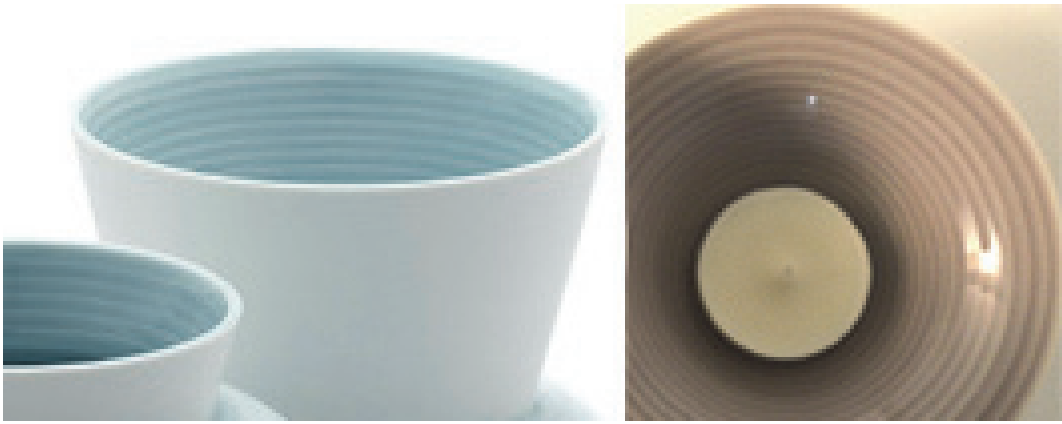
[도판4] 물레성형 후 결을 깎는 과정



[도판5] 윗면에 새겨진 동심원의 이미지



[도판6] 전 부분에 장식된 동심원의 이미지



[도판7] 안쪽 면에 새겨진 동심원의 이미지



[도판8] 옆면에 새겨진 동심원의 이미지



[작품 1] Plate I

ø 270 × 35(h) mm

백자, 물레성형, 1260℃ 환원소성

[작품 1]은 큰 접시 형태로, 기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심원의 흔적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시선이 먼저 닿는 전 부분에 동심원을 새겼다. 계단식으로 조각하여 두꺼운 기벽이 주는 둔탁함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전에 청화장식을 넣되 농도에 변화를 주었는데 이는 점증적으로 크기가 다른 접시를 겹쳤을 때 동심원의 방향성이 부각되도록 하였다.



[작품 2] Plate II

ø 300 × 35(h) mm

백자, 물레성형, 1260°C 환원소성

기벽이 두꺼워지면서 늘어난 무게감을 줄이기 위하여 기벽의 높이를 최대한 낮추었다. [작품 1]과 마찬가지로 계단식으로 장식된 동심원을 통해 둔탁함을 줄였고, 여러 개의 작품이 겹쳐져 하나의 원용이 이미지로 보이도록 하였다.



[작품 3] Small vase

백자, 물레성형, 1260℃ 환원소성

다양한 형태에 새겨진 동심원의 흔적은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지만 모아놓았을 때에는 조화롭게 원형을 이룬다. 꽃이 수면에 닿았을 때 생겨나는 수면의 파장이 연상되도록 작업하였다.



[작품 4] Vase I

ø155 × 220(h) mm

백자, 물레성형, 1260℃ 환원소성

부드러운 곡선미를 강조한 화기작업으로 바닥으로 갈수록 좁아지지만 무게감을 주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꽃을 통해서, 꽃꽂이를 하는 행위를 통해서 온기를 전하고자 하였다.



[작품 5] Vase II

ø150 × 190(h) mm

백자, 물레성형, 1260℃ 환원소성

조선시대 달항아리에서 보여 지는 풍만한 양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직선과 곡선의 비율을 다르게 한 두 개의 항아리 형태가 조화를 이루도록 제작하였다. 형을 이루는 직선과 곡선의 조화를 통해서도 원용의 형상을 표현하고자하였다.



[작품 6] Vase III

ø 175 × h125(h) mm

백자, 물레성형, 1260℃ 환원소성

[작품 6]은 옆면에 조각을 새기고 동심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나팔 형태의 화기로 제작하였다.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입구의 제한적인 느낌을 주면서도 수면에 닿을 때 퍼져나가는 동심원의 이미지를 극대화시켜 생동감 있는 자연의 느낌을 준다.



[작품 7] Vase IV

ø 145 × 115(h) mm

백자, 물레성형, 1260°C 환원소성

풍만한 양감과 푸른빛의 유약이 어우러진 물방울 형태의 항아리로, 만물의 근원인 물에서 느껴지는 생명력과 생동감을 품은 응축된 에너지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양감을 살려주는 표면 전체에 새겨진 동심원의 결은 두꺼운 유약의 층을 통해 형에 자연스럽게 융화되도록 하였다.



[작품 8] Vase V

ø175 × 240(h) mm

백자, 물레성형, 1260℃ 환원소성

밑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직선적인 형태를 활용하여 기벽을 두껍게 하고 조각을 깊게 새겨 고인 유약의 고임을 극대화하였다.



[작품 9] Vase VI

ø 180 × 155(h) mm

백자, 물레성형, 1260℃ 환원소성

깊게 새겨진 동심원에 유약이 충분히 고이고 흘러 하나의 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벽에 두께를 주어 유약이 두텁게 시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약간의 녹색 빛을 띠는 푸른 유약은 차분함을 더해준다.



[작품 10] 온도를 담는 접시

ø 315 × 75(h) mm

백자, 물레성형, 1260℃ 환원소성

뚜껑이 하나의 접시가 될 수 있는 합이 형태로 제작하여 각각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하나의 합을 이루도록 제작하였다. 형태의 윗면과 안 쪽 면에 동심원의 흔적을 새겨 원용의 형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수면파동의 이미지를 통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작품 11] Plate III

ø 335 × 15(h) mm

백자, 물레성형, 1260°C 환원소성

작품의 안에서 동심원의 깊이를 주는 방향을 다르게 하여 동심원에서 느껴는 동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접시의 윗면에 조각을 새겨 원용의 이미지를 잘 전달하고자 하였다.



[작품 12] 문진과 향꽃이

백자, 물레성형, 1260°C 환원소성

떨어지는 빗방울이 수면에 닿을 때 생겨나는 동심원의 형상을 모티브로 하여 동심원의 흔적을 새겼다. 동심원의 깊이와 간격을 조절하여 각각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였고, 끊임없이 생성되었다가 사라지는 동심원의 순간적 이미지를 작품 표면에 새겨 정적이면서 고요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향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자하는 현대인을 위해 향꽃이의 기능으로 제작하여 사색의 시간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작품 13] 향꽃이 _ 봄의 색
백자, 물레성형, 1260℃ 산화소성

겨울을 지나오는 봄의 계절에서 느껴지는 색을 작품에 담았다. 회색이 가진 차분하면서 적당한 느낌을 통해 겨울의 느낌을 표현하였고 보라색과 노란색, 연두색을 통해 생명력이 피어나는 봄을 표현하였다. 표면에 새겨진 동심원의 흔적은 봄의 기운이 수면에 비친 형상처럼 보이기도 한다. [작품 12]보다 작고 가볍게 제작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더 편리하도록 하였다.



[작품 14] 향꽂이 _ 가을의 색
백자, 물레성형, 1260°C 산화소성

녹음이 짙은 여름의 녹색 빛이 옅어지면서 붉게 물들어가는 낙엽의 갈색을 통해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의 색을 표현하였다. 다양한 향의 종류를 고려하여 대나무대에 달린 향을 꽂았을 때 쓰러지지 않고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높이가 높고 향을 꽂는 구멍이 깊은 향꽂이를 제작하였다.



[작품 15] 촛대 (candle holder)

백자, 물레성형, 1260°C 산화소성

빛을 매개체로 색에서 느끼지는 온도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위로 갈수록 퍼지는 나팔모양의 형태를 캔들 홀더로 제작하였다. 나팔 형태의 안쪽에 초를 놓을 수 있게 하여 쉽게 꺼지지 않도록 하면서 열을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용자로 하여금 놓는 위치에 따라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품 16] 휴식을 위한 사물
백자, 물레성형, 1260℃ 산화소성

향꽃이와 촛대의 용도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유약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굽
칼로 깎은 조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밝고 따뜻한 느낌은 주는
태토의 빛이 색의 굽갈의 날카로운 흔적을 중화시키면서 대립적으로 공존하도
록 하였다. 윗면과 옆면, 안 쪽 면에 새긴 동심원의 흔적을 통해 각기 다른 형
태와 용도를 가졌지만 자연스럽게 하나의 작품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작품 17] 휴식의 테이블

도기, 백자, 물레성형, 1100℃, 1260℃ 산화소성

[작품16]과 [작품 17]은 태토의 밝은 갈색과 대조되는 유백색의 유약을 사용하여 현대사회에 공존하는 따뜻함과 삭막함을 표현하였다. 공예는 사용자에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매개체의 역할을 했을 때 그 가치가 빛나고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화기와 향 꽃이, 촛대의 기능으로 제작하여 각박한 일상생활 속에서 삶에 여유를 줄 수 있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Ⅲ. 결 론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물을 만드는 공예가 기능성과 심미성이 조화를 이루어 사용자에게 의해 그 의미와 가치가 빛나기를 바라는 뜻에서 시작하였다. 원용의 개념은 연구자가 이루고자하는 공예의 가치를 함축적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원용에 대해 고찰하여 연구자가 이해한 원용을 작품 속에 형상화 하였다.

원용은 각각의 속성이 다름을 유지하면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가 되는 뜻으로 작품 속에 형상화한 원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보여줄 수 있었다.

하나는 원용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자 하였다. 원의 형태와 상징을 통해 이해된 원용의 이미지를 동심원을 통해 표현하였다. 원들이 각각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를 이루는 동심원은 각각의 속성이 다름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로 조화롭게 융화된 원용의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였고 작품의 표면에 동심원의 흔적을 새기는 방법을 통해 원용을 형상화하였다.

다른 하나는 기능성을 가진 형태와 심미성을 높일 수 있는 장식을 통해 하나의 작품 속에서 각각의 기능을 유지하고 균형을 이룸을 통해 원용 보여주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작품 속에서 소지와 유약이 각각 본래의 빛을 유지하면서 하나로 융합된 이미지를 통해서 원용의 형상을 보여 주었다.

작품의 표현 방법으로 물레 깎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동심원의 흔적을 굽칼로 깎아서 작품 표면에 새겼다. 동심원 조각을 작품의 어느 부분에 새겼는지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사용자의 시선이 가장 먼저 닿는 기의 전 부분과 윗면,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무르고 형태의 대부분을 이루는 옆면, 착시효과를 통해 극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안 쪽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작업의 초기에는 쓰임의 용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원용의 형상을 보여주기 위해 전부분에만 장식을 하였기 때문에 기벽을 두껍게 하여 작품이 무거워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았다. 그래서 기벽을 얇게 하면서도 원용의 형상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의 윗면에 동심원의 흔적을 새겼다. 이를 통해 작품의 무게감은 줄였지만 작업의 다양성에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화병의 형태에서 사용자의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무르면서 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옆면에 동심원의 흔적을 새겼다. 동심원의 흔적을 옆면에 새김으로써 화병이 가진 형태의 양감을 풍만하게 하고 동심원의 흔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유약의 고임을 잘 보여 주었지만 원용의 형상을 시각적으로 극대화시키는 데에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원용을 형상화한 동심원의 흔적이 온전한 형태로 보여 지면서 사용성에도 무리가 없어보이도록 전이 넓은 기의 안쪽 면에 장식을 넣어 보았다. 기의 안쪽 형태를 따라 새겨진 동심원의 흔적에 고인 유약과 동심원이 지닌 방향성과 기의 중심부로 빠져드는 듯한 착시 효과를 일으키면서 집중되는 효과를 보여 주었다.

초기에는 순백색의 태토와 푸른빛의 유약을 통해서만 보여 주었던 동심원의 흔적을 발색제를 통해 색이 가진 의미와 상징을 통해 다양한 해석으로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나아가 유약 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보여 지는 따뜻한 느낌을 주는 태토의 빛깔과 날카로운 동심원의 흔적이 대조적이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해 나가면서 부족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에 장식을 해보면서 작업의 능률이 증가하였고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작품을 제작할 수 있었다.

앞으로의 작업에서는 숙련된 기법을 통해 지금까지와 같이 아쉬운 점을 보완해 나가고 [작품 13], [작품14], [작품 15]와 같이 다양한 발색제를 이용하지만 지금까지의 작업에 볼 수 없었던 색의 의미와 상징을 통해 다양한 해석으로의 작업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작품에 다양한 이미지를 담고자 한다. 또한 [작품 16]과 [작품 17]과 같이 빛과 그림자를 통해 보여 지는 동심원의 구조적인 이미지를 보여 줌과 동시에 다양한 태도가 가진 빛깔을 살리도록 유약처리를 하지 않는 작업을 다양한 흠을 사용하여 시도해 보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영기 저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1992, 서울
- 곽철환 저 《시공 불교사전》 시공사, 2003.

<학위논문>

- 조현건, <파동 이미지의 재해석을 통한 장신구 조형 연구> ,
홍익대학교 석사논문, 2011
- 양동훈, <파동의 이미지를 조형화한 조각 작품 제작 연구> ,
경원대학교 석사논문, 2009

<학술지>

- 지혜경, <원융(圓融) 대한 고찰: 智顓 원융론(圓融論)을 중심으로>
《문학/사학/철학 한국불교사연구소 2007 11권》

ABSTRACT

A Study on the Pottery Based on Woonyuong(圓融)'s Image

Im KyungAh

Department of Crafts

Graduates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Modern people live busy lives. Modern people, worn out from their hectic lives, try to relax quietly in nature or enjoy their own time of meditation with tea, incense, or flowers. The researcher thought that handcrafts contribute to the enhancing people's lives by satisfying both the functionality and aesthetics of everyday lives. Also, when these two characteristic are in harmony, the true value of handcraft shines even more.

'Wonyoong' a term from Buddhism that refers to a state in which two different beings harmonize with each other to make a whole without losing each's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e concept of wonyoong applied in this paper can be explained in two ways. One refers to the state of two characteristics, functionality and aesthetics, balanced and harmonized. The other is the state of a calm pattern divided into humble concentric circles

harmonized together in one piece. Concentric circles that are neatly in one form without being tangled together is the best way to visualize the image of wonyoong. In concentric circles, there is one center and all the circles, overlapping with one another, spread outwards. This directionality represents development and progress and also the perfectness and harmony of a circle.

The piece is based on jiggering. While making the bowl, the mark of concentric circles that repeatedly appear and disappear is carved on the surface when burning. Then, the enamel naturally pools together and the clay and form and decorations become harmonized. The trial products of this study are mostly weapons in a brief form. These products follow the concise form of the white porcelain, for example an incense holder or paperweight, and the carved concentric circles smoothly harmonize with the enamel, expressing the image of wonyoong. By using blue enamel, the pooling in the surface of the item is highlighted, like light waves spreading continuously.

I hope that the pieces made through this study become emotional items where one can feel the warmth within people's hectic lives.